

미얀마, 경제제재 장기화로 경제상황 혼미

□ 경제 제재조치로 인한 경제난 지속

- 미얀마 경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사회구조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재정부문에 있어서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 누적과 교육, 의료, 인프라개발 등의 부문에서의 예산 부족을 초래하고 있음. 이번 군부의 아웅산 수 지 연금해제 조치도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됨.

□ 낮은 외환보유고와 높은 외채수준

- 외환보유고(금 포함)는 2001년 말 현재 210백만 달러(수입 1.1개월 분)로 극히 낮으며 미얀마 정부는 1998년 3월 이후 수입제한 조치와 함께 세계은행 차관 등을 대부분의 외채상환을 중지해 왔지만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음.
 - 외환보유고의 주요 재원 : FDI 및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
- 2001년 말 총외채잔액은 53억 달러(GDP의 130%)로서 과중하나 공적자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D.S.R.은 10%선으로 낮음. ('98년 말 원금 연체액 : 16억 달러)되고 있음. (공적채무 약 90%)
- 미얀마의 환율은 二重換率體系로 이루어져 있어 민간기업의 외환거래는 실세환율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기업거래는 공정환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실세환율의 경우 작년말 달러당 720차트에 이르고 있고 금년에는 800차트까지 높아질 전망.(공정환율은 6.5차트/달러선 임) 이는 정치 불안, 고물가 지속, 차트화 가치에 대한 불신, 낮은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적자지속 등에 기인하며 당분간 차트화의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외국인 투자 부진한 가운데 원조유입 중단

-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국제적 경제제재조치 부과, 정국불안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시아경제의 회복둔화로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ADB 등)들로부터의 지원은 군사정권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오고 있음. 세계은행은 1988년의 군사집권 이후 신규지원을 중단해오면서 미얀마는 기존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1997년부터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1986년 이래 차관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1997년 4월이래 전면적인 투자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원조자금 유입이 크기 감소하고 있으며, 군부의 장기집권에 대한 EU 등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세계은행도 1998년 이후, 아시아개발은행은 1986년 이후 신규차관 공여를 중단하고 있음.
- 이국간원조는 중국 및 일본에 의해 일부 인프라(상수도, 도로, 전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규모는 작음.

□ 향후 전망

- 아웅산 수 지의 가택연금 해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주화 진전여부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경제제재 해제, FDI 유입재개, 관광수입 증가 등과 함께 경제상황 호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사태진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